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말씀과 삶 ③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후서 3:18)

생동하는 주님의 교회 풍성한 복음의 열매

어느새 새싹이 파릇하게 움트는 파스한 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봄기운에 파릇파릇 솟아난 새싹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역동하는 봄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뿌연 먼지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9~20) 열매를 준비하는 '봄의 생동'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변경된 금요찬양집회 좌석과 저녁예배 시간(19:30)에 맞춰 모든 공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롬 6:5) 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에 진행되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전도회원들은 참여하여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도 믿음으로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한 생동이 아닌 복음을 위한 생동으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오늘은 장미인 주일입니다.

장미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헌복지소, 본지 7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벧후 3:1) 그는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힘들지라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벧후 3:10)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였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이다"(벧후 3:18)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 육신에 속하여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자.(고전 3:1,3) 육신에 속한 자가 될 때 영은 자라지 못한다. 자신의 뜻과 감정에 매이기 때문이다. 신자로서 성숙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취할 것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취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다. 우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벧전 2:2)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딤후 2:15)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살아갈 때 꾀짓지 않게 된다.(시 119:11)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다. 굳어진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내려 거듭날 때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취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신자의 삶은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하다.(빌 4:6~7)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취해야 한다.

다른 자들로부터 취할 것을 알자. 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취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히 10:25) 혹시 복음에서 떠난 모임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취할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엡 4:11~12) 주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다른 신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이처럼 말씀을 취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취한다.

영적으로 걷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영적으로 걷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적으로 걷는 것'은 성경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깨우쳐 돌아보며 겸손히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갈 5:16) 성경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걷게 한다.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 괜히 성경을 근심케 하여 소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엡 4:30; 살전 5:19)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참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된다.(롬 6:4; 엡 5:2) 성경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다.(엡 5:8) 자기를 부인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천국으로 걸려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 보혈로 거듭난 신자는 말씀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도 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성경에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길을 걸어야 함도 안다. 이 길에는 열매로 가득하다.(요 15:7~8)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안드레는 복음을 듣자마자 전했다.(요 1:41) 이 복음을 들은 베드로는 생명을 받은 뒤에 많은 사람들을 역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행 2:41) 이처럼 열매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열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나와 깨우는 것이다.(행 6:7)

성숙한 신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 자기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다. 김가와 가시덤불이 아닌, 보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밋밭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할 것이다. 신자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온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김성관 원목사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17)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6-17)

What is the weakest point in today's church? Regrettably, the answer is evangelism. Churches have lost their passion for lost souls. They do not deeply care about lost people; they are more interested in amazing and beautiful people. Why are there so few soul winners? Why are so many Christians ashamed of the gospel? Why do today's big churches spend the bigger part of their resources developing programs, systems, and strategies to entertain and maintain current memberships instead of on reaching lost souls? Where is your heart in this matter?

The Apostle Paul really loved the gospel. As today's Bible verses tell us, he was not ashamed of it! He was honored to share it with others. He told the Corinthian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Cor. 15:3-4) At one time Paul had been an enemy of the gospel, but on the road to Damascus he met Jesus and believed. (Acts 9:4-5) He went from persecuting Jesus to "proving that this Jesus in the Christ." (Acts 9:22) For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Paul evangelized the lost. His goal was to spread the gospel,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Cor. 2:2) No matter what situation he found himself in, Paul shared Jesus. Even after being beaten and jailed, he prayed, sang hymns of praise to God, and proclaimed the gospel to the jailer. (Acts 16:23-25, 31) Paul preached Christ's love to just about anybody who would listen. He stood before the poor, the rich, and the powerful all the while proclaiming the good news. The status or position of a person did not matter to Paul, proclaiming the gospel was all that was important.

Paul delighted in the power of the gospel. He truly understood that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Wherever the Holy Spirit sent him, he would go without money. He came to people to preach Christ and heal their sick. He left believers with great happiness. Too many of today's religious leaders preach a salvation message different than the Bible. They think people can be saved by their own efforts, but this is simply not true. God's word is very clear on this matter. Salvation comes only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Paul's change from a persecutor to a passionate preacher,

from a man of hate to a man of love, could only have happened through his faith in Jesus. The only way he could live and say, "I do all things for the sake of the gospel, so that I may become a fellow partaker of it," was by the power of God. (1Cor. 9:23) Acceptance of the gospel changes a person's nature. 2 Corinthians 5:17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This gospel makes people hate what they once loved, and love what they once hated. Jesus Christ has the power to change anyone, no matter how sinful, into a child of God. This is what we call amazing grace.

Paul was determined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As a Pharisee, the concept of righteousness was not new to him. He had thought that righteousness came from the Law, but Jesus taught him that it cannot; it can only come through God's grace, which is Jesus. Paul learned that a righteous man lives by faith, not the Law. His worldview was turned upside down. His spiritual eyes realized that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The availability of salvation to all who believe encouraged Paul in his ministry. Sharing the gospel filled his life with adventure and blessing. He proclaimed,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 10:12-13) Even Peter, speaking to the men of Israel who crucified Jesus, told them, "And it shall be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cts 2:21)

My dear friend, have you received the gospel? Are you sharing it with others? What are you waiting for? You need to commit yourself, like Paul, to reaching out to others. Have you determined to know nothing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I ask you now, are you ashamed of the gospel? Is it difficult for you to proclaim Christ in your home, work environment, or with your friends? Why is it easier for you to talk about the weather and world events rather than Jesus? Why are you so hesitant to stand up for Christ? Do you take delight in the power of the gospel? If so, then dedicate yourself to proclaiming Christ to whomever the Holy Spirit sends your way. I truly hope that you are not ashamed of the gospel. 

다음 주일 설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¹⁶⁾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¹⁷⁾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김성관 목사

현대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대형 교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보다 현재의 교인수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물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이 말해주듯이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한때 바울은 복음에 대적했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행 9:4~5) 그리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행 9:22)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바쳤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16:23~25, 31) 바울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는 지위와 빈부를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권력자 등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바울에게 사람의 지위와 신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기뻐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보내시는 것이라든지 어디든지 돈 한 톨 없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큰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과 다른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에서 열정적인 전도자

로, 중오심이 가득하던 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3)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17은 말합니다. “그러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사람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오히려 미워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인생을 걸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에게 ‘외로움’이라는 말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영의 눈으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더욱더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전도를 통해 그의 삶은 모험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본인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호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2~13)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또는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낯선나 세계정세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한 말은 꺼내기 어려워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시든지 온 힘을 다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복음 전하는 것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말씀과 기도 ③

기도의 응답

(다니엘 10:10-14)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 다니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쳤다. 다니엘 10장 2~3 절에 보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된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듯이 다니엘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장래의 이상을 보았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가?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기도였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욕심, 계획,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단 1:8) 다니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세상의 도전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기에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때 욕심의 정욕대로 기도하며 시험에 빠진 채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 (마 26:41) 따라서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죄인 중에 내가 피수나리”(딤후 1:15)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눅 9:23)처럼 자신을 믿지 말자.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자. 오직 주님께만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만이 타협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 준다. 타협을 요구하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였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드렸다. (단 2:19~20)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들은 큰 목표를 놓고 기도하지만, 금방 쉽게 있어

버린다. 우리의 요구만을 제시하고, 또 잊어버린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단 7:13)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은 담대하였다. 다니엘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뱀사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단 5:22~23), 죽음을 위협하는 조서가 있었음에도 원래 하던 대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단 6:10)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다니엘의 눈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

다니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

다니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성공을 위한 좋은 기회와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모든 것을 버렸다. (단 1:8) 다니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기에 그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았다.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하였다. 다니엘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단 2:18, 10:2)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연약대로 영원한 축복이 자신의 민족에게 이어지길 기도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두고 항상 기도하였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단 9:23)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00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요 16:33)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천사들도 호모한다. (단 10:1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나의 마음 살피시라.....”(찬 425장)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단 10:18~19)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려버리 두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 (단 12:4) 가식적인 기도를 버려라. 가장 진실한 기도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기도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라.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감사위원회



박흥균(장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는 복음을 위하여 지출된 교회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온전한 감사(監査)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위원회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려 합니다. 매순간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현재 우리 교회는 먹고 마시는 예산을 절약하여 선교와 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는 물론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회재정은 더욱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에게 특별헌금의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단체들은 그 해에 예정된 예

산을 그 해에 소진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결과 모든 부서에서 이러한 취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의 예산집행이 복음을 위한 일에 더욱 집중되었음을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하신 자니라”(요 6:27)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5대 목표에 따라 재정은 지출될 것입니다. 팔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를 위한 지원에도 변함 없습니다. 특히 현재 복음을 위한 시설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회재정은 이에 세워진 예산에 따라 지출을 할 것입니다. 모든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는 만일의 것들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복음적인 감사(監査)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빌 2:17) 인간의 뜻이 섞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번 선교회는 나에게 특별했다. 선교회를 준비하며 3차 심사를 받을 때까지 모든 게 순탄하였다. 그러나 가정문제로 선교팀에서 빠지게 되었고, 4차 심사 또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선교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였다.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주님은 날이 갈수록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한 가정에서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을 보았다. 이도 다 빠지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그 영혼에게 보내셨다. 팀장님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대답은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그 영혼을 위해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고, 나는 그 영혼에서 눈을 떼 수 없었다.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다. 언제 주님의 품으로 갈지 모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천국백성 시민권을 내려주신 것이다.

영원히 죽을 뻔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영혼을 만나게 해주었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사역에서도 약간이지만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한 청년을 만났다. 이름은 행리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는 무척 기뻐했고 우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예수님은 행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자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요."라고 고백을 하였다. 너무 기뻐했고, 우리는 행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다.

행리처럼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알고 있는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전하지 못하였는지 회개하였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에 감사를 더할 뿐이다. "이 모든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박지민(대학부 4팀)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4일(월) ~ 4월 22일(월)	19교구 3지역	유승열

새싹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 나는,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심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렸다. 고등학생 때 나는 세상을 탐아가려는 썩은 믿음에 얽매어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제야 참 복음이 무엇인지의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이때 생겨난 새로운 믿음을 '새싹'에 비유했다. 1년이 지난 후 어느 정도 믿음의 싹이 자라났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나의 뜻이 아니었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로 했다. 선교가 나의 믿음에 영향만을 주고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선교에 임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에 초점을 두었다. 처음 2~3일 동안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감사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이 갈급했고, 무언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선교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다. 나는 여태껏 나의 시선으로만 선교를 바라왔던 것이다. 나는 내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주님을 믿는 믿을 안에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최선으로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있는 딸로서, 아버지가 눈물과 애통함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딸의 인락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나의 은혜만 추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주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 역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위로해 주셨다. 그 사랑에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선교를 마치며 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이 많은 나를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 돌아오려는 방자를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딸이 되게 해 달라고....., 아름다운 신부님이나 예비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실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오른 나의 가슴이 한 순간 꺼져버리는 성난불이 아니라 밝아나 빛나나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며 믿는다.

강지민(대학부 5팀)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가기 전, 이번 선교는 지난 어떤 때보다 매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신실해 보이고 바랄만한 소망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이것조차 나의 의지와 계획이었습니. 막상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대가 컸던지라 냉랭한 저의 마음이 더욱 안타까웠고, 외식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비록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기대했지만 내 결심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럽니다. 제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회개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선교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의 일부분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회개에 머물러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매순간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의 거짓되고 부패한 죄를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지만 매일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렘 17:9~10) 죄뿐인 저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십자가를 찬양하게 해 주세요. 또한 믿을 없이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게 해 주세요." 아멘.

박미연(대학부 6팀)

세밀하게 인도하신 주님

첫날 사역 중에 한 이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분은 심각하게 복음을 들은 뒤 영접기도를 따라하였지만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오모바비를 타고 그 집으로 들어간 남자에게 전도지를 보여 주며 읽어 주고 있었다. 순간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이 나에게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계속 살펴보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어 주는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을 없음을 다시 깨달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경계망동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가슴에 치며 회개했다. 과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셨는지 구원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시켜 주셨다.

박성남(권사, 21교구 1팀)

어느 찬양대원의 눈물

나는 주일3부예배에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면서 어느 찬양대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마침 그날의 설교제목이 '용서'였고, 찬양곡은 <그 옛날 주가 걸으신>이었다.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대원은 마음속에 분명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 따라 나 오늘 다시 걸으며 주 모습 그랬네.'를 고백하였을 것이다.

이름 모를 찬양대원이 흘린 눈물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성도의 본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찬양은 삼한 마음을 치유하고 영성을 일으켜 마음을 잘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기 때문이다. 찬양은 예배를 아름답게 하며, 영적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한다. 이 찬양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무명의 성도)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전도, 선교, 정말 자기 희생이 없고서는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전도해야 할 친구, 종업원, 이웃 등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지만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믿음의 유산조차 소멸한 채 남을 전도하기는커녕 내 자신, 내 가족조차도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달라고 사순절 내내 기도했다. 이어 뜻이한 부활절에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뜻으로 흰색 옷을 입었다. 좀 출기는 했지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드렸다. "예수님은 오늘날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듣는 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슴속까지 적시며 나를 찾아 주셨다. "주님!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오늘은 컷에 더 감동하게 들린다. "예수님! 나를 포기하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되게 하소서!" 아멘.

김호은(권사, 6교구)

크레용 같은 교사의 직분

아이들 속에 묻혀 조용히 교사의 일만 담당했던 제게 몇 달 전 '예배 전 찬양인도'라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아이들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한다는 두려움과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떨림으로 앞장서기만 했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주일에 부를 찬송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것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신단 모습을 떠올려 보고, 율동도 만들어 보면서 준비하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으름도 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날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태해지거나 고만해지지 않도록 내게 과제를 주셨고, 또 그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예배 시 그저 순서에 따라 습관적으로 부르던 찬송에 대해 작사, 작곡자, 리듬, 유쾌한 이나 관련 성구도 찾아보고, 그 날의 설교말씀과 연결시켜 가사를 마지막 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불러 보니 자연스레 그 주에 아이들과 함께 할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시니까," 하면서 주일 이른 시간인데도 서둘러 뛰어들어오는 우리 반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해 주고픈 마음에 제게 주어진 15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끝난면 아쉬움도 남지만 아이들이 맑고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떠올리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준비하며 다시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찬양 도화지에 아이들이 그려 나갈 크레용 같은 교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하고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법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 5:19~20)

이경화(교사, 초동부)

생명의 양식

금요일마다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시간을 기다린다. 나의 이 기다림은, 성경말씀 속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적이다. 두 시간 이상의 외출은 저의 힘들었고, 하루를 시작하여 저녁 시간이 되면 피곤이 몰려와 어떤 외출도 하지 않던 내게 금요찬양집회의 참석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나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곤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문득, "이제는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다. 나에게도 도전되었고, 격정스러웠지만 나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

금요찬양집회는 찬양의 기쁨과 말씀과 회개와 감사가 있는 시간이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움과 욕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만 걸달하신 위임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과 같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점점 동화되어 갔다. (오 주여 저비를 배부소서)를 비롯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 미션스쿨에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던 곡들이어서 화창시절이 생각과 감회가 더욱 새롭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제는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의 찬송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의 양식>은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곡이다. 대학 시절, 합창단에서 이 찬양을 부르던 젊은 베이스 목소리들 가진 남편을 만났고, 이제 금요일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문경숙(권사, 16교구)

교회탐방 충청복지관



은총으로 거듭난 복음의 산실, 충현복지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만능주부터인가 장애인들은 복음에서 소외되었다. 신체의 장애가 복음을 막았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무관심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다. 이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충현복지관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자.

충현복지관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충현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1995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개관 1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김종국 복지관장)

충현복지관의 중점 사업은?
이 세대를 받는 변화가 아닌 복음에 기초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충현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흐르고 있는 이 사회에 참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박재우 과장, 기획홍보팀)

충현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충현복지관은 학원전부터 학원후, 청소년, 성인, 중장년까지 모든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상기 과장, 총무팀)

남궁구 내에 거주하시는 생애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신 분들도 재가복지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별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충현 복지관 상담팀(564-4885 내선 109)으로 상담 및 진단 신청을 먼저 하시고, 상담 및 진단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재우 과장)

각 팀별 소개 및 사업은?
사업대상 지역, 시설 및 자원의 지속적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기 과장)
복지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교육, 조사 연구, 홍보사업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획홍보팀)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기회확보를 위한 상담, 진단 및 심리치료, 부모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상담팀)
아동교육은 전반적 발달장애와 관련된 특수교육이 필요한 취약 전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아동교육팀)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이 가정, 사회, 경제, 여가, 직업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성연 전문교육팀)
중증 장애인의 지적장애, 경계성,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선화 직업재활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적응(협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황기태 사회재활팀)
지역사회(연상동, 논현동, 신사동 등)내에서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에게 가정, 정신, 건강, 후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종우 재가복지팀)

이웃친한장애(지적 장애, 정신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현정 중현사회복지시설팀)
관내 재가지원, 입가금 지원, 비즈엑서서리 제작을 통해 장애인과 의 경제력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즈엑서서리 전문가들이 있는 직업훈련시설과 특화인 많이 사할때 주세요.

(진정애 충현직업훈련시설팀)
가정주 유산한 아독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미연 중현장애인 공동생활가정팀)

충현복지관의 시설 현황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본관의 경우 총 3층(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관은 총 3층이며, 1998년에 건축 공사 하여 1층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2층과 3층은 본관과 연결시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성덕 기획홍보팀)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재활사업



별관 2층의 경우 우 2월 용도변경 공사를 하여 중현사회복지시설과 중장년 프로그램(은빛누리), 기획홍보팀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한편 충현공동생활가정은 중현빌라와, 복지관에서 가까운 다세대 주택 26개소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지숙 총무팀)



비즈 작업

비즈엑서서리

복음을 위한 사업은?
복지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여 이윤인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종국 복지관장)

매일 아침 직원들이 경건회를 통해 기도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이윤인과 직원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에는 특별예배를 통해 이윤인 및 이윤인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현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역사회적응훈련으로 수요2부예배와 금요친정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상기 과장)

성도님에게 당부하는 일은 무엇이 기도제목은?
충현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복지관 1층 재가복지팀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웃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박지숙 재가복지팀)
충현직업훈련시설에서는 타이완(Twain)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비즈엑서서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관 2층 충현직업훈련시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광민 직업훈련시설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관 직원들로 구성된 단기간고임이 조직되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전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성우 기획홍보팀)
1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수고가 주님께선 기하시려는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국 복지관장)

“나누고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충현복지관의 관훈처럼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 누가 알아 주지 않더라도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 빛”(요 1:9)을 비추고 있다. 이들의 결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와 믿음의 기도이며 사랑을 실천하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모든 사람의 빛이요”(요 1:4)

(편집국)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18	최희은	1 장년3부	임문재(1)	633	이정순	25	이은복 천성(2)
619	이호현	5 대학부	김현진(8)	634	임옥순	15 장년1부	김경현(11)
620	김경자	1 장년3부	오형실(19)	635	오말자	16 장년2부	남현숙(10)
621	박희자	25	이은복	636	이별수	9 장년3부	하일영(9)
622	김귀옥	9 청년2부	정문준(4)	637	한순자	18 장년3부	이수연(1)
623	최은수	14 청년1부	이미주(4)	638	박초선	9 장년3부	오덕수(1)
624	이정용	12 장년2부		639	송송자	13 장년2부	정문순(13)
625	박희희	12 장년2부		640	김갑수	13 장년2부	라병연(14)
626	김선혜	6 장년2부	김동미(8)	641	김종옥	21 청년1부	최정자(2)
627	차원철	7 청년1부	남영숙(14)	642	이연주	11 장년1부	이성옥(20)
628	송한미	21 고등부	박성민(11)	643	문본나	25	이은복 이계영(13)
629	노보민	3 청년1부	이은기(7)	644	이진영	5 장년1부	이은진(1)
630	김주은	11 장년4부	박성민(14)	645	함희자	7 장년1부	오영순(11)
631	김성희	13 장년2부	박유연(1)	646	김미지	3 청년1부	간재혜(3)
632	김주은	2 장년3부	한민교(2)	647	최미연	24 고등부	장성남(2)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박진기 신진호출 5.20	여국근 신진호출 5.20	안창덕 신진호출 5.20	정진호 신진호출 5.20	김익환 신진호출 5.20
장 훈 임원덕 10.20	이희식 신진호출 10.20	하종훈 신진호출 10.20	연치원 신진호출 10.20	
정승진 이영선 10.20	이성진 신진호출 10.20	이재영 신진호출 10.20	김준희 신진호출 10.20	
송승일 황진석 10.20	유재진 신진호출 10.20	강명구 신진호출 10.20	전성일 신진호출 10.20	
김정규 양태선 10.20	유원철 신진호출 10.20	박정국 신진호출 10.20	김환수 신진호출 10.20	
최상복 최창진 10.20	박용훈 신진호출 10.20	강철형 신진호출 10.20	이광원 신진호출 10.20	
강호성 윤보라 10.20	김근영 신진호출 10.20	박준식 신진호출 10.20		

■ 여지도사

윤윤식 신진호출 10.20	김민식 신진호출 10.20	송준재 신진호출 10.20	이옥주 신진호출 10.20	김발자 신진호출 10.20
김정현 강덕철 10.20	최문심 신진호출 10.20	전은희 신진호출 10.20	김경자 신진호출 10.20	
김희희 박옥자 10.20	류인희 신진호출 10.20	한성진 신진호출 10.20	임태주 신진호출 10.20	
강미영 이복순 10.20	이복순B 신진호출 10.20	전영희 신진호출 10.20	이혜숙 신진호출 10.20	
황순란 김정훈 10.20				

■ 전집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집음향지휘 김소연 ■ 전집연주자 장원희 노은영

■ 전 집 사 송유환